

“제주 본향당 이야기”

- 마라도 아기업개당 신화 -

1. 채록대상자 : 김춘금/마라도 前 해녀회장
2. 채록 일자 : 2017.07.05

우리 커보니까 그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고 들었어요 할머니들한테. 듣는데 그 애기당이란 것은 옛날에는 지금은 할망당이지만 나이가 들어서 할망이 됐을 것이다 해서 할망이라 그랬어요.

왜냐하면 그때는 아기업개 처녀였어 처녀 아가씨, 아가씨 때 옛날엔 못살아가지고 애기 남의 아기업개로 가서 밥 얻어먹고 그럴 정도로 옛날엔 다들 제주도는 삶이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마라도는 무인도였어요. 사람이 안 살았을 때. 밖에서 해녀들이 물질을 와가지고 애기를 데려오면서 그 아기업개를 같이 데려와서 하룻밤 작업을 하는데 하루 작업하는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두 사람 꿈에 선물을 했답니다. 애기 엄마하고 또 다른 한 분 꿈에 선물을 해서, 이 아가씨를 처녀를 놔두고 가지 않으면 니들이 내일 나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사람이 죽을 것이다. 라고 선물을 했답니다 꿈에.

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작업하고 가면서, 근데 그 이 처녀당이 할망인 애기업개는 먼저 배에 타더랍니다. 먼저 배에 탔는데 제주도 말로 우리 포대기, 아기업는 포대기를 놔두고 왔으니까 저거를 가서 가져와라 하난 막 안 내리려고 했답니다.

안내리려고. 근데 할 수 없이 갔다 오라고 막 하니까 내렸답니다. 내리자마자 배를 띄워버렸답니다. 그래서 배를 띄워버리니까 여긴 무인도고 지금 할망당있는 자리, 거기에서 모슬포를 쳐다보면서 몇 날 몇 일을 울고 지내다가 거기서 몇 달 있어 와보니까 거기에서 시신이 그대로 있는 자리에 지금 할망당을 모셨다고 그래요.

겐 우리 어머니의 친 할머니가 거의 백 살 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같이 물질을 했답니다. 그분을 누구 이름까지 거느리면서 우리 어린 때는 그걸 그냥 넘겨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아 그때 잘 들어 놔둘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니까 그 이름까지 거느리면서 그렇게 했어요.

근데 지금은 저는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시다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은 그때 옛날엔 아가씨였지만 이제는 할망이 됐을 것이다. 할머니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해서 할망당 할망당 그래요. 해녀들은 이제 좀 마음이 괴롭거나 몸이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할망당으로 가서 절 한번 하고 마음의 위안을 삼는 그런 곳입니다.